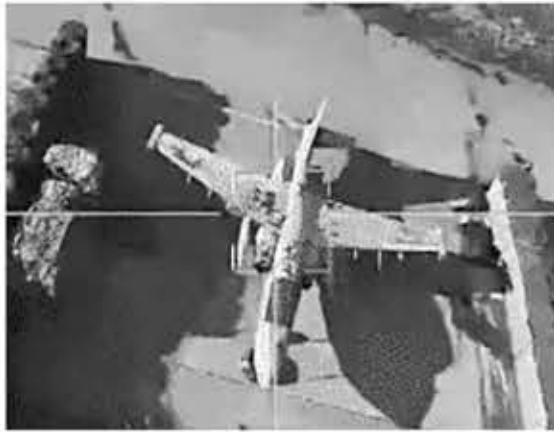


자폭 드론이 파괴한 전투기는 '짜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을 속이는 기상천외한 전술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지난 2일 미 군사전문매체 더워존 등은 러시아 드론이 파괴한 우크라이나의 수호이(Su)-25 전투기가 사실은 '짜퐁 무기'라고 보도했다.



▲ 러시아 자폭드론에 찍힌 우크라이나 Su-25 전투기. 사진=트위터 캡처

최근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이루어진 지역은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 인근 돌진체보 공군기지다. 지난달 30일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처음 등장한 영상을 보면 일부 자율 기능까지 갖춘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셋'(Lancet)이 공군기지에 자리잡고 있던 Su-25를 포착하고 돌진해 그대로 폭발한다. 드론이 적의 비싼 전투기를 파괴하는 가성비 높은

더워존은 "우크라이나 측이 적의 탄약과 미사일, 드론 등 화력을 쓸데없는 곳에 소진시키기 위해 폐기된 Su-25의 부품 등을 사용해 정교하게 짜퐁 무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지상무기를 넘어 항공기까지 정교하게 미끼 무기로 제작하는 기술이 수준급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벌인 셈.

특히 이 장면은 드론 자체 카메라와 다른 정찰드론에 잡혀 당시 작전의 생생함을 전했다. 그러나 영상이 확산한 직후 유명 '오픈 소스 정보'(OSINT) 관련 계정과 군사블로거들은 오히려 러시아군이 '당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드론이 파괴한 Su-25가 사실은 짜퐁 무기라는 것.

비행기 추락 '자작극' 유튜버 "징역형"



▲ 유튜버 트레버 제이콥이 자신의 추락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경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키고 수사 중 위증한 미국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CNN은 4일 "연방법원이 유튜버 트레버 제이콥(30)에게 고의로 경비행기를 추락시킨 뒤 잔해를 제거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이콥은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로도 활동했던 2021년 12월 24일 '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제이콥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제이콥은 비행 중 엔진에 문제가 생기자 낙하산을 펼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낙하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제이콥이 사전에 낙하산을 메고 있던 점, 떨어지며 셀카봉을 이용해 촬영을 이어간 점이 의심을 샀다. 이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수사에 나서 '고의 추락'이라는 사실을 지난 4월 밝혀냈다.

제이콥은 이후 수사당국으로부터 '잔해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비행기가 어디로 추락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잔해를 숨기기 위해 헬리콥터를 동원해 잔해를 인근 숲으로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제이콥에게 수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제이콥이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주목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애 안 낳으려면 세금 더 내"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자녀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자국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며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율을 촉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124만 5,000명을 기록했다. 향후에도 2024년 117만 2,000명, 2025년 115만 3,000명, 2026년 114만 3,000명으로 신생아가 매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에서 폐기됐던 조세 정책이 다시 언급된 것이다.

과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줄자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이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무자녀세는 폐지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